

01 교회소식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사례를 의학적으로 입증해 복음 전파에 힘쓰는 'WCDN', GCN 방송 프로그램을 만나본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03 기획특집

눈에 보이는 표증으로

표증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며 범사에 형통함을 받을 수 있다.

04 권능의 역사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뇌출혈, 독성간염, 유방암, 화상, 하라다병 등이 치료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소개한다.

만민뉴스

제634호 2014년 5월 1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현대 의학으로 입증된 하나님 권능의 역사

GCN 방송 인기 프로그램 'WCDN' 통해 전 세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마지막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72억에 달하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날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펼쳐 보이고 계신다. 한편,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개척 때부터 무수한 기사와 표적,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WCDN을 조직해 성경이 침입을 입증하며 GCN 방송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과 성결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순수기독교방송, GCN 방송(www.gcntv.org)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다.

특히 'WCDN' 프로그램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병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등 놀라운 치료 사례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은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모임으로 매년 각국에서 '영성과 의학'이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WCDN 회장인 채윤석 박사의 진행으로 지난해 12월 16일에 첫 방송된 후 현재 13회까지 방영됐다. 채 박사는 우리 교회 개척 이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나타난 다양한 치료 사례를 의학 자료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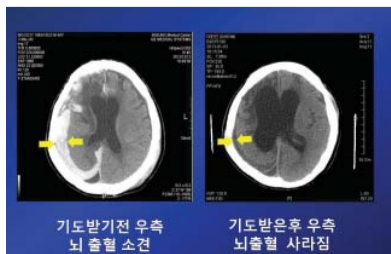
이재록 목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전 세계 만민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참 믿음을 갖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에 무수한 사람이 시공 초월한 권능의 기도로 각종 암과 백혈병, 에이즈 등 불치난치병은 물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고, 임태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GCN 방송을 통해 소개된 'WCDN' 치료 사례 중 7건은 병원 검진 의학 자료와 함께 소개한다(4면 계속).

1 → 사진 기도를 통해 '뇌출혈' 치료

이한진 성도(53)는 빙판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져 극심한 두통이 발생했다. 병원 검사 결과 우측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됐다. 환자가 움직일 수 없기에 가족이 환자 사진을 가지고 이재록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았다. 그러나 호전되지 않고 폐렴까지 걸려 기도 삼관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해야 했다.

환자의 가족은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있음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허물들을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 뒤 이재록 목사에게 의식불명인 환자를 대신해 사진 기도를 받은 결과, 폐렴과 뇌출혈이 치료됐다.



2 →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석회성 건염' 치료

황찬미 자매(25)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갑자기 손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세수는 물론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을 수도 없었다. 병원에서 X-ray, MRI 촬영 결과 석회성 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권유했으나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아무런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교회 부설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이 인도하는 환자집회에 참석해 지난날 미지근했던 신앙을 철저히 회개했다. 그 뒤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받고 깨끗이 치료됐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증표 무지개

▶ 1998년 5월 15일, 만민중앙교회 상공에 해를 두른 원형 무지개가 나타난 이후 국내외 성도들은 17년째 희한한 무지개를 수시로 목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영의 공간을 이해하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졌다.

“앞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요한계시록 4:3)



(기획특집_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눈에 보이는 표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22)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죄 사함 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딤후 2:4).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진 바 되도록 표증으로 나타내 주셨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표증으로 세우신 사람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셨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 임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1. 시대마다 표증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을 모두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권세를 받아 만물의 영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뒤부터 상황이 달라졌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니 마치 고아와 같이 원수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남겨져 질병과 슬픔,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을 혼자서는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하나님 뜻을 전달할 사람들을 택해서 어떻게든지 다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는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을 알려 주셨지요.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말라기 등 많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심으로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을 비롯해 오늘날까지 성령 시대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표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랑의 표증으로 세우신 사람들의 사명

하나님께서 표증으로 세우신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곧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 주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며 모든 앓매이는 것들에서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질병이나 연약함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증거가 죽은 후에 구원받는 것뿐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쉽지 않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고 질병과 연약함과 온갖 괴로움에서 해방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믿음이 있다 해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을 시대마다 보내셨습니다. 표증된 사람들을 통해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며 모든 앓매이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등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마음에도 사랑이 임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소유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실 수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을 입어 보셨기 때문에 인생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잘 아셨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인]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수한 복음의 진수를 전하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만민을 깨우고 있는 사랑과 권능의 목회자.

1982년 장년 9명과 어린이 4명이 모여 시작된 만민중앙교회를 성령의 역사 속에 전 세계 1만여 지·협회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초대 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입증하신 것처럼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권능을 통해 성경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하고 있다.

2000년부터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에스토니아 등에서 대규모 연합집회 부흥사로 활발하게 사역해 왔으며 집회 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CNN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는 220여 개국에 중계됐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지금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때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뤄 드리고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다.

www.drlee.or.kr

사람마다 믿음이 있다 해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표증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며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호소하고 있지요. 죄인 중에 과수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생명의 위협과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를 지극히 사랑해 주님처럼 섬기고 불췌았지요. 심지어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갈 4:15) 기록할 정도로 마음 다해 섬겼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안에 돌아오고 싶다 해도 그 길을 바로 알지 못하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표증으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밝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성경에 나오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난해구절들과 비유, 묵시는 아무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친히 풀 수 있지요. 사람의 지식으로 결코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을 통해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기에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따르는 기사와 표적,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로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역사들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들을 보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전지전능하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됐지요. 즉 소경이 눈을 뜨고 병어리가 말을 하며 각색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 주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행 2:22).

성경상의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따르는 표적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막 16:20).

사도 베드로의 권능은 얼마나 놀라웠던 지 그가 지나갈 때는 병든 사람을 거리에 눕혀 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힐까 바랐습니다(행 5:15). 또한 사도 바울은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갈 정도였습니다(행 19:12).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 2천여 년 전과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히 13:8).

3.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표증으로 세운 사람들을 신뢰할 때 임하는 축복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표증으로 세우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섬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표증으로 세우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넵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었으나 엘리사 선지자를 정성껏 섬김으로 잉태의 축복을 받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한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해 아이를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넵 여인은 하나님께서 표증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눈에 보이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증인 엘리사를 보내신 것이 여인에게는 큰 축복이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깊이 신뢰하고 함께함으로 태양과 달의 운행을 멈추게 하는 권능을 받았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불췌음으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굶어 죽을 상황에서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등 하나님께서 보내신 표증된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해 함께함으로 받은 축복들이 많이 나오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성도가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받고 가정이나 사업터의 문제를 해결받아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표증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2014.5.18~5.24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2-15
- 3차 영혼육 5-9
- 목자와 하나 • 창세기 강해 106
- 믿음을 척량하시니 3-7
- 일곱교회 17-21
- 요한일서 강해 19-23
- 축복 4 • 우리 삶의 등불 15

GCN TV설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3-4 (이수진 목사)
- 눈물의 열매 1 (이미경 목사)
- 말씀 1 / 영의세계 16 (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1 / 생령수 8-9 (신동초 목사)
- MIS강의 9 / 탕자의 비유 3 (정구영 목사)
- 믿음의 경주 (조소영 교육전도사)
- 내가 여기 있다 (신미은 교육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7
- 옛날 옛적에 4
- 모두 드려요 7
- 흥겨운 소리 3
- 아름다운 예배 6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26
- 찬양 드려요 26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2
- 황기 26
- English 13
- 뷰티풀라이프 1-2
- 풀리스트 7-9

해외선교회 프로그램

- 인도연합대성회 3
- 회상 7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3 → 시공 초월한 기도로 '독성간염' 치료

황핑핑 선교사(41)는 노산으로 인해 몸을 보호해야 한다는 친구들의 권유로 한약을 복용하게 됐다. 그녀는 이 사실을 잊은 채 계속 모유를 수유했다. 그런데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독성간염이 발병했다. 독성간염은 우리 몸에 양약, 한약과 같은 독한 물질이 간에 들어와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아이는 40도가 넘는 고열과 황달과 복막염으로 인한 장 마비, 복부팽만, 구토, 탈진 그리고 패혈증으로 인한 요로계 감염 및 항문 주위 농양이 발생해 사경을 헤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으면 나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싱가포르에서 서울에 있는 이재록 목사에게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요청했다. 아이는 기도받은 후 급속히 호전돼 열이 내리고 황달이 사라졌으며 건강을 회복했다.



4 → 지방흡입술 시술 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소생

에리카 성도(22)는 성형외과 의사인 아버지에게 5~6시간에 걸쳐서 지방흡입술 시술을 성공리에 받았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갑자기 혈압이 떨어졌고 의식을 잃어 바로 중환자실로 옮겼다. 피 검사 및 CT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여러 방법으로 낮은 혈압을 올리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고, 의식불명의 혼수상태였다.

마침 미국 WCDN 디렉터인 알만도 피네다 박사로부터 서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멕시코에서 서울에 있는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은 그녀는 즉시 회복했고 지금은 결혼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기도받기 전(A)에는 심장 좌심실 비대가 심했으나 기도받은 후(B) 정상으로 회복된 조건

5 → 회개할 때마다 통증이 줄어들고 '유방암' 치료

한인옥 집사(58)는 오른쪽 가슴 멍울이 잡히고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갔다. 조직 검사 결과 유방암 2기였다. 수술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권고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의뢰했다. 신기하게도 죄를 발견해 회개할 때마다 통증이 줄어들었다.

2년 뒤 재검사를 했는데 의사는 여전히 암세포가 남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그동안 지켜 주심에 감사기도를 드리며 더욱 기도에 힘쓰니 꿈에 이재록 목사가 나타나 치료의 빛이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 후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병원 검사한 결과, 암세포가 보이지 않았고 암이 있었다는 흔적만 남았다.

암세포는 계속 분화해서 전이되거나 확대 되는데 놀랍게도 진행이 멈춘 상태에서 암세포가 없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초음파 검사 ▲ 기도받기 전 : 유방암 크기 2.5cm ▲ 기도받은 후 : 유방암이 있었다는 흔적만 보임



6 → 권능의 기도로 '전신 3도 화상' 치료

김은득 권사(90)는 주방에서 미끄러져 펄펄 끓는 대형 솥을 건드리는 바람에 뜨거운 물이 쏟아져 가슴 이하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다행히 곧바로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아 몸에서 열이 빠져나갔기에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다.

그 뒤 매일 한 차례씩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으면서 딱지가 입혀지고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얼마 후 새살로 덧입혀지면서 2~3개월 만에 손과 복부 등이 깨끗하게 치료됐다. 살과 핏줄과 신경이 만들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때마다 신속히 치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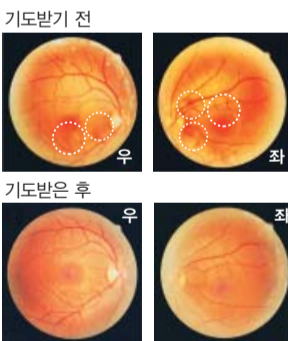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흉터까지도 남지 않도록 피부를 정상적인 피부와 다름없이 소생시켜 주셨다.



7 → 실명의 위험 속에서 '하라다병' 치료

유영미 집사(44)는 두 눈의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물이 울퉁불퉁하게 보였다. 뿐만 아니라 구토와 어지러움 증세까지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검진 결과 하라다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눈에 있는 흑이 커지면 시신경을 덮어 시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았다.

사물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던 현상이 사라지고, 노란색으로만 보이던 사물이 정상으로 보였다. 재검사 결과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또한 기도받기 전 0.8, 0.25였던 시력이 기도받은 후 좌우 1.0으로 좋아졌다. 그 뒤 점차 시력이 좋아져 좌우 1.2가 됐다. 보통 '하라다병'이 완치되려면 6개월이 걸리는데, 그녀는 단 2주 만에 치료를 받았고 실명의 위험 속에서도 정상이 됐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하다.



망막 사진 촬영 결과 양쪽 눈의 물혹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력도 0.8, 0.25에서 좌우 1.0으로 좋아졌다.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9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손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238,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7127-2073
- 광명자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10-3430-3312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야탑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